



16년

계묘년 새해 정음시정 설계

2023년 1월 9일 월요일 (음 12월 18일) 제3179호

# 전주매일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호야 천변 2길 6번지



지난 6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플라스틱옴니엄 코리아 뉴에너지(주) 투자협약식에서 김관영 도지사(가운데)와 유희태 완주군수, 실바인 토렌트 플라스틱옴니엄코리아뉴에너지(주)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완주에 외국계 기업 투자 유치

수소차 부품 제조 플라스틱옴니엄코리아뉴에너지, 전북도·완주군과 535억 투자 협약  
2025년 완공 목표·29명 고용... 도내 소부장 주력산업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탄력

전북도가 올해 첫 투자유치로 수소차 부품을 제조하는 외국계 기업을 도내에 유치했다.  
전북도는 지난 6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가운데)와 유희태 완주군수, 실바인 토렌트 플라스틱옴니엄코리아뉴에너지(주)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플라스틱옴니엄코리아뉴에너지(주)는 오는 2025년까지 완주테크노밸리 제2단지 8블록내 1만8,081㎡에 수소연료 탱크 제조 설비를 위해 535억원 을 투자하고 29명을 직접 고용할 계획

이어서 전북도가 주력산업으로 미래 차를 육성하려는 계획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기업인 플라스틱옴니엄(프랑스)은 전 세계 137개의 공장과 31개의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중견기업으로 지난 2020년에 한국 법인인 '플라스틱옴니엄코리아뉴에너지(주)'를 설립한 이후, 블로우몰딩, 필라멘트 와인딩 등의 고압 수소 탱크 핵심기술에 주력해 오고 있으며 오는 2025년부터 현대자동차에 수소연료탱크 약 1만5,000개 납품 계약을 맺음에 따라 이번에 전북으

로 투자가 이뤄졌다.  
전북도는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수소관련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수소생 산체계를 구축하고 관련산업을 한층 집적화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또한 올 상반기에 준비중인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소모빌리티 중심의 중점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차 산업벨트 구축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올해부터 '사전 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 확대 운영

기존 5~6개 시·군 → 14개 시·군으로

전북도는 종합·특정감사시 감사 대상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해왔던 '사전 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를 2023년부터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매년 종합·특정감사 대상 5~6개 시·군에 대해 해당 감사기간 중 3~4일간 사전 컨설팅감사 현장 상

담창구를 운영했지만, 자유로운 상담 분위기 조성과 신속한 해결방안 제시 등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는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장 상담창구에서는 시·군 공무원은 물론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도 담당 공무원과 함께 관련 사항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상담내용에 따라 간단한 사항은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그 외 현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관련 법·제도, 현장 확인 등 면밀한 검토 후 해결방안을 회신할 계획이다.  
현장 상담창구를 포함해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전라북도누리집(www.jonbuk.go.kr), 분야별정보법무, 행정, 조세/사전컨설팅 감사연혁 및 자료에 게시된 사전 컨설팅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은 수소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탄소중립 2050선도 그린수소산업 중심"이라는 목표로 새만금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며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전북이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업과 함께 힘을 뽐낼 무치자"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신규 투자가 지역 일자리 등 지역경제에 상승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전북도에서 성공한 기업을 위해 앞으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재훈기자·완주=이중복기자

## "고향사랑기부제 동참하세요"

전북도 간부 공무원들 자율 참여... 퍼포먼스도 펼쳐  
각자 고향사랑e음 시스템·농협은행 통해 사전 기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맞춰 전북도 간부 공무원들이 기부에 동참하며 도민들의 관심을 환기했다.  
지난 6일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에 따르면 도 간부 공무원들은 자율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고, 올해 첫 간부회의에 앞서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 퍼포먼스를 펼쳤다.  
앞서 간부 공무원들은 '고향사랑e음(lovegyang.go.kr)' 누리집, 대면 접수창구인 '농협은행'을 통해 자율적으로 기부에 참여했다.  
대부분 전주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나머지 13개 시·군 중 각자의 고향 및 연고지역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지사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고향사랑기부제를 도민과 출향

인들께 효과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답례품과 기금사업 아이템 발굴에도 공직자가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면 전주시민은 자기 주소지인 전라북도(광역)와 전주시(기초) 두 곳만을 제외하고,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도(광역)'는 전라북도 분청인 '도청'만을 의미하므로, 전주시민은 '전북도청'과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타시군(군산, 김제, 완주, 부안 등)에 기부 가능다.  
/김재훈 기자

## 공공기관 혁신안 본격 추진

전북도, 도 산하 16곳 대상

전북도가 도 산하 공기업·출연기관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자체혁신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민선 8기 김관영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관내초융합진흥원을 시작으로, 16개 공공기관을 직접 찾아 민선 8기 도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각 기관별 자체혁신안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각 기관에서는 자체 실무추진단을 꾸리고 민선 8기 도정운영방향에 맞춰 조직 개편, 재정 건전성 확보, 운영 효율 강화 등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혁신안을 마련해 왔다.  
도는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 등 산하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조직, 인사, 기능조정, 재정 등 경영혁신안 120개 과제를 최근 확정하고 본격적인 기관 혁신을 위한 행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공공기관 혁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직분야에서는 관리자와 지원부서 비율이 높은 조직에 대해 3인 이하 팀 통합, 대팀제 운영과 중간관리자에게 핵심업무 부여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사분야에서는 출연기관 내부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 등 전문분야 교육훈련 및 경력관리제도 도입, 도정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분야별 TF 운영, 정규직 전환 전문직군 인사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발굴해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원점검토 등 재정효율화방안과 회계의 투명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공통업무시스템 구축, 기관 간 기능이 중복된 업무의 조정 등이 혁신안에 담겼다.  
전북도는 이 같은 혁신안을 비롯해 공공기관 혁신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도의회와 소통 공유할 예정이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혁신안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